

“‘감사불응 유치원 폐원신청 반려’ 광주시교육청 정당”

광주지법, 유치원 측 청구 기각 “폐쇄인가 처분은 재량행위”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불응 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폐쇄 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말 설립자의 건강 약화와 재정상 문제 등으로 유치원 폐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 22일 A씨에게 현금출납부와 징수부, 지출부의 감사제출 자료를 통지했지만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은 3월 26일 감사당

당 공무원 6명이 A씨의 유치원을 찾아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고 다음날인 27일에 시정명령을 통지한 뒤 다시 감사담당공무원 2명을 보내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A씨의 거부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A씨는 3월 27일에 광주시교육청

에게 유치원 폐쇄를 통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거부 또는 감사자료 미제출의 사유로 고발된 사립유치원의 경우 현재까지 통보된 감사처분을 모두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폐쇄인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또 시교육청은 4월 말에는 폐원이 인가되지 않음을 근거로 무단 폐쇄했다는 공문을 교육청에 제출했

는데 이는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것이 인 만큼 감사 수감 후 폐쇄인가를 받으라는 시정명령 통보를 했다. A씨는 유치원 폐쇄인가 요건을 모두 갖췄던 점 등을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이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고도의 공공성을 갖춘 교

육시설인 유치원의 폐쇄에 대한 인가처분은 행정청으로서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전성 등 관련된 공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살펴보면 광역시 교육청의 장은 유치원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 공공감사법에 따른 ‘자체감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세관, 불법물품 21만4000점 적발

인천본부세관은 겨울철 난방용품 중심으로 반입 실태를 확인한 결과, 불법·위해 물품 67건을 적발해 통관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를 맞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5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난방용품과 선물용품, 크리스마스 조명기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검사서에서 난방용품 45건(6만8730점) 선물용품 22건(14만5712점) 등 불법·불량

제품 67건(21만4224점)을 적발해 통관을 보류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기가 오기된 경우 그리고 제품시험기준에 부적합한 불량제품들이다. 특히 기준치 1.4배를 초과한 유효한 슬라임(일명 액체괴물) 제품도 8건(7만28%점)이나 적발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



성탄 트리 앞 기념사진

2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광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자원봉사하는 산타할아버지와 성탄 트리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두환 자택 앞 대학생들 “내년 광주 40주년...재산압수하고 처벌하라”

“29만원 있다지만 1끼 20만원 호화식사 즐겨”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2·12 군사 반란’ 당일날 쿠데타 주역인 하나회 멤버들과 함께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중식당에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전두환의 재산 압수하고 과거 행실에 대해 진상규명을 진행하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대학생 단체 ‘서울 서부지역 청춘의지성’은 23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살자 전두환을 구속해야 한다”라며 “전씨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두환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광주에 북한군이

있었고 본인은 헬기 사격과 발포명령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라며 “5명의 증인이 당시 헬기 사격과 무분별한 무력진압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헬기 사격 당시 전씨는 광주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광주에서 그를 직접 봤다는 목격자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소하 학생은 “전두환은 일초 하이퍼를 알고 있다” 재산이 29만원 뿐이다”라며 파렴치한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하고 있지만 최근 골프와 호화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0년은 5·18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라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월의 유가족들은 거리에서 진상규명과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열린 ‘전두환 규탄 및 단죄를 위한 대학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두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처벌을 외치고 있지만, 전두환은 호화자택에서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춘의 지성 구성원들은

전씨의 모습으로 변장해 골프를 즐기다가 “이거 왜 이래!”라고 외치며 체포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30대 투숙객은 왜 모텔에 불을 질렀나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휴일 새벽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방화범이 경찰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일 오후 이 남성에게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3일 모텔방에 고의로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긴급체포한 김모씨(39)를 상대로 방화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전날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

에서 베개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고 달아나려다 연기를 흡입한 김씨는 구조대에 의해 광주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정밀검사를 마친 김씨가 건강상 이상 없다는 병원의 판단에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방법에 대해서는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이고, 불이 커지지 않자 괄 휴지로 불을 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방화 원인 등에 대해선 “누군가

가 나를 위협한다. 누가 나를 쫓아 온다”는 등 방화와는 상관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날 병원 치료과정에서 갑자기 화를 내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병력을 확인하지 못해 전문가 정신 감정과 주변인들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한편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방화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씨(39)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이날 김씨의 방화로 모텔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상자 8명 중 의식을 잃었던 일부 환자들이 의식을 찾았고, 23명의 경상자 중 1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12명은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조기발견, 자립치료 중인 민척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인원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1577-1000